

영화 ‘옥자’ 멀티플렉스서 못보나

논란과 별개 13일 감독·배우들 내한 확정

넷플릭스 “온라인·극장 동시 상영 고수”

CGV “극장 선개봉 아닐땐 상영 불가”

롯데시네마·메가박스 “다각도로 검토 중”

영화 ‘옥자’의 개봉 방식을 둘러싸고 멀티플렉스와 넷플릭스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표면적으로 ‘옥자’의 온라인 및 극장 동시 상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도 ‘옥자’를 이달 29일 온라인과 극장에서 동시에 선보이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옥자’의 국내 배급을 대행하는 배급사 뉴도 고민에 빠졌다. ‘옥자’ 이외에 누가 투자하는 영화들을 나중에 극장에 배급해야 하므로 멀티플렉스들과 마냥 대립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뉴 관계자는 “온라인과 극장 동시 개봉에 반발하는 멀티플렉스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 “일단 대한극장이나 서울극장처럼 단관 중심으로 상영관을 확대해나가되, 멀티플렉스와의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는 ‘옥자’의 언론 및 배급 시사회도 오는 12일 총무로 대한극장에서 연다. 대한극장은 최근 몇 년간 상업영화 시사회 장소로 거의 이용되지 않은 곳이다. 다만, 멀티플렉스 3사 사이에서도 조금씩 온도차가 감지돼 극장 개봉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동시 상영 불가’를 가장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곳은 CGV다. 전국 130여 개 극장을 운영 중인 CGV 측은 “영화들은 극장 개봉 후 통상 2~3주 뒤에 IP(인터넷) TV 등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그동안 영화계의 관행이자 질서였다”면서 “극장 선(先) 개봉이 이뤄지지 않으면 ‘옥자’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0여 개 체인을 운영 중인 2위 극장 사업자 롯데시네마 역시 동시 개봉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재개봉 등의 방식으로 나중에 상영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박스도 “영화 개봉 시기는 통상 2주 전에 결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개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는 거대 동물 옥자와 강원도 산골에서 함께 자란 소녀 ‘미자’(안서현 분)의 우정과 모험 등을 그렸다. 넷플릭스가 제작비 600억원을 모두 투자한 영화로, 틸다 스윈턴, 안서현, 스티븐 연, 변희봉, 최우식 등 국내외 배우들이 출연한다. 영화계는 ‘옥자’가 작품 자체보다는 개봉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논란이 계속될 경우 봉준호 감독의 명성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사회 이후 ‘옥자’에 대한 반응을 본 뒤 멀티플렉스들도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즉 ‘옥자’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이번 논란은 결국 넷플릭스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넷플릭스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내에서 프로모션 효과를 확실히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틸다 스윈턴을 비롯한 ‘옥자’ 출연 배우들이 내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봉준호 감독과 틸다 스윈턴, 안서현, 스티븐 연, 변희봉, 최우식, 지 안 카를로

에스포지도, 다니엘 헨셀 등 국내외 출연진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열고 한국 관객과 만난다. 이들은 오는 14일에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내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옥자’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언론 및 배급사 대상 시사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총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다. 상업영화 시사회 장소로 주로 사용되던 멀티플렉스 극장 대신 대한극장을 선택한 것은 ‘옥자’ 상영방식을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멀티플렉스 극장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클론’ 12년 만에 컴백

29일 데뷔 20주년 앨범

1990년대 후반 가요계를 풍미한 남성듀오 클론(강원래, 구준엽)이 데뷔 20주년 앨범으로 12년 만에 컴백한다. 7일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클론은 29일 20주년을 기념한 새 미니앨범을 내며, 20일에는 선공개곡을 선보인다. 이번 앨범은 2005년 발매한 정규 5집 ‘빅토리’(Victory) 이후 12년 만의 신보로, DJ로 활동 중인 구준엽이 전곡 음악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1996년 1집 ‘아 유 레디?’(Are You Ready?)로 데뷔한 클론은 ‘꿈따리 사바라’, ‘난’, ‘도시 탈출’, ‘돌아와’, ‘초련’ 등의 히트곡을 내고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2000년 4집 이후 그해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며 공백기를 보내다가 5년 만에 5집으로 컴백해 화제가 됐다. 당시 강원래는 휠체어를 타고 음악 방송에서 ‘휠체어 댄스’를 선보여 감동을 자아냈다. 강원래와 구준엽은 지난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컴백을 예고하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중계방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7일의 왕비(재)		
12	00 KBS 뉴스 12	05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평가전	00 MBC 정오뉴스 20 기분 좋은 날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편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25 파수꾼 한 번에 몰아보기 55 중계방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5 닥터 365
2	20 타오르자마 버스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00 뉴스브리핑
3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자동차부품산업 위키 2 30 TV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준결승전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00 MBC 뉴스M	00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00 2TV 생생정보 50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속보뉴스TV 인사이드	55 별별버드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KBS 스페셜-시민의 탄생 2부작 <제1편 1987년>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수목드라마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장육진 탄생 100주년 특집다큐 <100년만의 귀환>	10 해피 투게더	10 하하랜드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윗동네 겨울 생존법>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얼마 깨무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빛으로 얼룩진 고부의 눈물>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피달 카레 조림과 상추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김 위외 인생 <논드리의 마지막 기도>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원색의 유혹 서아프리카 4부 생명의 첫출 김바아강> 21:30 한국기행 <명당에 살고 싶다 4부 수상한 두메산골> 21:50 과학 다큐 비문드 <불멸의 꿈, 냉동인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연인 같은 손자와 할머니의 핑크빛 다낭 여행>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 (음 5월 14일 丙寅)
子 48년생 기세에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렀다. 60년생 여태까지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흐름이다. 72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84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42	午 42년생 진력한다면 목직지에 도달할 것이다. 54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든 법이다. 66년생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하자. 78년생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가장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5, 46
丑 49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61년생 실행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73년생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야만 한다. 85년생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78	未 43년생 고단함은 미래의 결실을 기억한다. 55년생 서로 뜻이 맞으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다. 67년생 급히 반전되는 국세이니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9년생 절대적이지 않다. 91년생 끝까지 가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0, 80
寅 50년생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게 될 것이니라. 62년생 분출구가 없다면 반드시 한계 범위에 이를 것이다. 74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국이나라. 86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버리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3, 71	申 44년생 상호적이다. 56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68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80년생 친화력과 자연스러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9, 86
卯 51년생 처음에만 힘들 뿐이지 한 번 뚫리면 일사천리이다. 63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75년생 지대한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87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47, 51	酉 45년생 파문을 몰고 오면서 예상치 못 할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57년생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는 이치로다. 69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81년생 적당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66, 32
辰 52년생 불규칙적으로 여러 차례 계속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일하라. 64년생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76년생 정성으로 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88년생 인과응보의 원리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67	戌 46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58년생 어떠한 구도가 되더라도 소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70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90
巳 53년생 시도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65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77년생 가정자리가 매우 부실한 형태이나라. 89년생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85	亥 47년생 상대의 유혹에 본심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알라. 59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양태로다. 71년생 절만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유익하리라. 83년생 녹음방송에 새가 지저귀니 마음껏 즐겨도 되는 흥왕의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16,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